

미군, 윤락여성 3명 살해

경기도내 80년 이후 범인 미군당국에 넘겨

【수원=배경록 기자】지난 80년 이후 경기도 내 미군기지 주변의 윤락 여성 가운데 3명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으며 10명이 질병 등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.

10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의정부, 송탄, 평택, 동두천, 파주 등 5

변 윤락 여성은 2천8백25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81년, 85년, 86년에 각 1명씩 3명의 윤락 여성이 미군에 의해 모두 목졸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.

관계 당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 당국에 넘겼